

공영무역 합격 자기소개서

직무 : 경리

성장과정

1남5녀의 가정에서 누나들 틈에서 성장해왔습니다. 호기심이 많은 반면 공부완 거리가 먼 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으며 학교 성적 또한 좋지 못 했습니다. 어렸을 적엔 숙기가 없는 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점차 변화된 모습으로 자랐습니다. 심지어는 저녁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까봐서 원래 늦게 먹는 밥을 빨리 먹곤 했습니다.

본인의 성격(장,단점 특징)

의리를 중요시 여기며 배려심 또한 나름대로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번 틀어진 사람과는 잘 교합하려 하지 않습니다. 물론 내가 잘못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입니다. 현재 초등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. 잡기를 좋아하며 또한 잡기를 잘하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유머러스한 성격이라서 친구들은 대체로 절 좋아 했습니다. 한때 잠시나마 꿈이 개그맨이 돼 보겠다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.

인생관

뿌린 대로 거두리라!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져 간다고 생각합니다. 본인이 죄를 지었을 시에는 자기가 죄 값을 치루지 않으면 반드시 후손이 대신 죄 값을 치룬다고 생각합니다.우선 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.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고요. 기회가 된다면 방송대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싶습니다.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더 나아가 CFO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. 자기계발 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.

지원동기

아버지가 대학을 나오셨지만 병역기피자로서 관공서에서 잠시 일하셨지만 퇴직 이후에는 박정희 정권이라서 더 이상 취업을 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머니와 옷장사(유난이 백양건 매입을 잘 안 하시고 메리야쓰를 많이 팔아줬죠)를 약40년 가까이 하시고 저도 잠시지만 금강제화 의류사업부를 재직했으며 또 친구와 같이 중국에서 옷을 구매해서 옥션을 통해서 판매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소위 땡처리를 많이 했었죠. 손해를 보면서까지 말이죠. 어쩔 수 없잖아요. 이월상품이고 철이 바뀌면 더 팔기 힘들니까

솔직히 이젠 아주 옷이라면 재고가 많이 남아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. 또 옷을 좋아하며 옷에 대해선 친숙한편이고 또 속옷에 대한 미련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(특히 여성속옷)

기타사항

병역이 면제된 것은 제가 선천적인 지병인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인해 4급(제2국민역) 판정을 받고(당시 YS정권당시 70년생들의 마지막 방위병들이 보직배치가 포화상태로 인한) 2년간 영장이 안 나오면 장기대기로 인해서 면제(5급)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

또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축농증(부비동염)수술을 이번 3월4일날 하기로 결심했고 합니다. 그래서 혹여 면접제외가 온다면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.

